

이덕일의 '역사의 창'



재상의 무게, 필부의 염치

초나라 항우(項羽)와 한나라 유방(劉邦)이 맞붙었던 초한(楚漢) 전쟁에서 유방의 승리를 예견한 인물들은 드물었다. 초나라 대장군 항연의 손자라는 출신 성분으로 보나, 보유한 군대 수로 보나,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의 용력으로 보나 항우는 성(姓)도 없는 부친을 둔 유방을 압도했다. 그러나 승자는 유방이었다.

가다. 전공 능력으로는 모두 유방보다 뛰어났지만 유방은 자신보다 나은 인재들을 등용했고, 그 결과 항우를 꺾고 승리했다는 말이다. 한(漢)나라 개국공신들의 공훈을 논할 때 1위는 경제를 책임졌던 소하였다. 이런 점이 평민 출신의 유방을 중원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광해군 15년(1623) 서인들은 광해군을 내쫓는 이른바 인조반정(仁祖反正)을 일으켰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극복에는 큰 공을 세웠지만 자신을 지지했던 북인(北人)들만 중용하다가 서인들의 쿠데타를 맞았다. 그러나 쿠데타의 성패 여부는 불확실했다. 1등 공신 이서(李爾)가 "반정 초에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광해군 폐출 소식을 듣고 주상(인조)의 성덕(聖德)을 알지 못해 상하가 놀라 소란스러웠고, 항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위세로써 진압하기도 어려워 말하기 지극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김장생 '사계전서(沙溪全書)')라고 전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광해군의 갑작스런 폐출에 반발하는 사대부들도 많았다. 서인들은 당초 김상헌(金尙憲)의 주장대로 남인·북인을 모두 배제하려고 하다가 곧 역량 부족을 깨닫고 반대당파였던 남인 이원익(李元翼)을 영의정으로 전격 등용했다. 전 영의정 이원익은 인목대비 폐모에 반대하다가 여주(驪州)에 유배 중이었는데, "이원익이 앞 조정의 원로로서 수상(首相: 영의정)에 제수되어

입조(入朝)하자 인심이 안정되기 시작했다"(이건창 '당의통략(黨議通略)')라고 말할 정도로 한 재상의 무게가 나라의 인심을 바꾸었다. 박근혜 정권이 몰락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핵심은 폭넓은 인재 등용을 외면하고 비선에 기대어 국정을 운영한 데 있었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수많은 필부들이 촛불을 든 덕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그때도 단 한 명의 소하, 장자방, 한신, 이원익 등을 발탁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권력을 쥔 자들의 얼골 외에 무엇이 달랠겠느냐는 싸늘한 시선 속에 자신들이 초고속 승진시킨 검찰총장에게 정권을 빼앗겼다. 지금은 어떤가? 무려 158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 간 옥산 참사에 대해서 고위층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정권의 현실이다. 국왕과 재상들이 정사를 못하면 하늘이 천제지변을 내려 벌한다는 것이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이다. 과학적 상관관계를 따질 것이 없이 재변이 발생하는 그 자체가 고위층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국왕을 갈아치울 수 없으니 재상들이 먼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간 158명의 젊은 원혼의 무게와 재상 자리의 무게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최소한 필부의 염치는 갖고 사는 재상들을 보고 싶은 것이 필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순천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고관절·척추 증후군



김중선 첨단우리병원장

무릎보다는 고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척추의 관절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말이다. 척추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으로 인해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오래 걸기가 힘들어지고 서 있을 때 다리로 통증이 내려간다.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걸기가 힘들다. 그래서 의사가 허리 문제와 고관절 문제를 혼동할 수가 있다. 환자가 다리로 통증이 내려가는 방사통을 호소하면 무조건 허리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뒤쪽 엉덩이나 엉치가 아프면 허리와 관련이 있고, 앞쪽 사타구니 쪽이 아프면 고관절이라고 생각했다, 고관절은 위치가 비교적 몸 중심의 앞쪽이어서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앞쪽, 사타구니가 아픈 경우가 많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다, 고관절 환자의 통증 양상을 연구해 보니 엉덩이나 허벅지 또는 무릎 아래의 하지 방사통으로 생각되는 다리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통증의 위치만으로 고관절이나 허리가 문제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학적 검사 등을 꼼꼼히 해야 한다. 몇 가지 검사 방법에 대해 의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환자가 본인의 질환을 찾는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방법은 눌러 봐서 아픈 곳이 어디인지 찾는 것이다. 눌러서 통증이 심하게 있는 부위가 대개 문제가 있는 부위이다. 또한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관절

을 회전시키거나 특정 동작을 취할 때 아픈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서도 고관절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의사가 진단이 어려운 부분은 관절이나 신경 문제가 아니고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엉덩이 부위에 있는 많은 근육과 인대들이 있다. 또한 근육이 문제가 되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꼭 허리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을 보일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 신경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짧고, 약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문제가 되는 근육을 찾아서 풀어 주어야 한다, 과거에는 근육에 직접 주사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체외충격파라는 기계가 도움을 주고 있다. 아픈 부위에 직접 충격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되는 반대 부위에 충격파 치료를 하는 게 최신 의료 기술이고, 최선의 치료 방법이다. 아직도 아픈 부위에 직접 충격파를 때리고 있는 병원이 있다면 다른 방식의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수술하고 나서도 엉덩이가 아프면, 척추 외과 의사에게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경 주사나 약물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고통 호소를 척추 외과 의사와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엉덩이이나 다리가 아픈 게 꼭 고관절이나 허리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고관절 주위 힘줄에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부위의 문제가 엉덩이 주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치료가 시작되어야 빨리 회복될 수 있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다.

기고

기술 시대의 관용



김정희 전남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리는 인류의 양심을 늘 다시 일깨워야만 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비로소 새로운 썩이 돌아 나듯이”(요한 13.24) 그 누구도 이러한 우주론적 법칙을 부정하지는 못할진터! 공익을 위해서 사심을 버리고,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 하려는 관용의 정신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 ‘관용’은 고통을 수용하고 인내하며 한없이 기다리는 숭고한 철학적 정신력이며, 또한 나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기보다는 ‘다른 이의 뜻’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열린 마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술인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짓밟을 수밖에 없다’는 일차원적 논리에 매몰된 채 관용의 삶을 포기했다. 어쩌 이런 상황을 ‘내 탓은 아니고, 남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관용의 삶은 고통을 기피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함으로써 실현된다. 이런 삶은 단순히 흑백논리가 아닌, 너와 나의 대화 속에서 시작된다. 그러기에 기술인은 너를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하는 삶이란 ‘내적인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길이며, 그리고 삶의 전제로서 그 내적 진리가 삶의 의미미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기술인은 이러한 내적인 진리의 힘에 의해서 관용의 삶을 다시 체험하고 단련해야 한다. 상호 신

뢰와 사랑도 체험하고 단련하는 삶 속에서 전제된다. 관용을 체험하고 단련하는 것은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내는 것이며, 고통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내는 것이다. 공자는 인(仁)이란 ‘극기복례’고 말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도리가 바로 나 자신의 인내와 절제임을 밝힌다. 무한한 인내와 절제로서 힘의 한계를 분명하게 그을 수 있는 자만이 이웃과 협력, 단결, 조화 그리고 대화 가능하다. 어떤 의미에서 관용은 포용이다. 어머니들의 가슴에서 무한히 녹아내리는 사랑 같은 것. 그와 같이 인간의 도덕적 정신이 기술 속에 투영될 수 없다면 그런 기술 사회는 폭력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폭력은 자신은 물론 남에 대한 책임도 부정한다. 관용의 정신은 바로 이러한 무질서한 힘을 극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선 나무터 먼저 죽는 연습을 실천해야 한다. “죽음은 삶의 연습”이라고 한 플라톤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참으로 살려면 나무터 먼저 죽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정신의 황무지가 되어 버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책임져야 할 모든 사람들-교육하는 사람들을 필두로 사회 지도자들-은 부디 관용의 삶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 희망,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자.

오늘의 세상은 기술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가 하나같이 기술 일변도의 가치만을 추구하고 있다. 70년대 이후 한국도 은 국민의 힘을 산업 발전에 결집시켰으며, 그 결과 지금은 세계 11위라는 경제 성장국의 대열에 서게 됐다.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인의 저력은 세계가 주목할 만큼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우리 자신의 인간성, 도덕성 그리고 사회성을 한 번쯤 곱씹히 되돌아 보자. 때 늦은 감이 드나 이제 생존을 위해서 기술 시대에 관용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 관용의 삶은 인내와 절제를 의미한다. 기술인은 매사를 편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데서 관용 자체를 쉽게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우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만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세입 급감 광주시, 재정 운용 효율성 높여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광주시의 내년도 취득세 수입이 10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정부가 지역 개발 공채 발행까지 축소하기로 해 지방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광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올해보다 16.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금액으로는 1055억 원에 이른다. 80%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의 대폭 감소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또한 그동안 낮은 이자율 지역 개발 공채를 발행해 매년 800억 원의 지역 개발 기금을 조성·활용했지만 정부가 내년분부터 의무 매출 채권 대상을 축소하기로 해 연간 20%의 기금 수입 감소가 우려된다. 반면에 내년 세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9.1%

(2385억 원)나 증가했다. 지난해 671억 원이었던 출자·출연 법인 출연금도 892억 원으로 늘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세수 감소와 가용 재원의 한계로 국비와 시비가 동시에 투입되는 이른바 ‘매칭’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당장 아시아문화 공유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 서부권 노인복지시설 건립,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등에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1077억 원을 내년 분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광주시처럼 재정 자족도가 낮은 지자체의 원에 이른다. 80%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의 대폭 감소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또한 그동안 낮은 이자율 지역 개발 공채를 발행해 매년 800억 원의 지역 개발 기금을 조성·활용했지만 정부가 내년분부터 의무 매출 채권 대상을 축소하기로 해 연간 20%의 기금 수입 감소가 우려된다. 반면에 내년 세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9.1%

‘있으나 마나’ 민방위 대피소 일제 점검·정비

전쟁 등 비상사태 때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민방위 대피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일보 취재팀이 광주 지역 민방위 대피소를 점검해 보니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광주에 모두 582곳의 대피소가 있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자신의 주변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은 인근 주민 3만여 명이 수용하는 대피소지만 거주하는 주민들조차 주차장이 대피소로 사용되는지 몰랐다. 민간 시설이다 보니 관리 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 직원조차 주차장이 대피소인지 몰랐고 민방위 훈련을 한 적도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충장로·금남로 지하상가도 유사시 3만 7000여 명이 대피하는 공간이지만 방문객은 물론 상인들도 대피소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관리 실태도 엉망이었다. 광주시가 지

난 8월 ‘을지 연습’을 앞두고 5개 구청과 함께 점검했다고 하는데 민방위 대피소에 안내 표지판이나 유도 표지판이 없는 곳이 많았다. 평상시에도 대피소 출입구가 잘 보이도록 관리하고 개방해야 하는데 남구 구동 광주공원 민방위 교육장처럼 굳게 잠겨 있는 곳이 태반이었다. 대피소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비품조차 없는 곳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민방위 대피소를 안내하는 ‘국민 재난 안전 포털’과 ‘안전 디딤돌’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으니 광주시와 자치구의 관리 실태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민방위 대피소는 유사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시설이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과 평소 개방할 경우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관계 기관은 지금부터라도 꼼꼼한 점검을 통해 비상시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중세 유럽은 전쟁의 역사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게르만, 반달, 서고트, 동고트 등 이민족들이 국가를 세웠고 이후 약 1000년간 경쟁 체제에 들어갔다. 각국이 영토를 넓히고 부를 쌓는 것에 모든 역량을 쏟으면서 쉼 없는 전투가 반복됐다. 십자군 전쟁, 100년 전쟁 등 ‘비상식적인’ 전쟁으로 피해가 엄청났다. 하지만 법·제도·과학기술·문화예술·의학 등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날랐다. 서유럽의 발전은 서로마의 멸망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동양 사상의 근간인 제자백가가 탄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시작된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였다. 공자·노자·장자·맹자 등 200여 명의 사상가가 나타났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다. 춘추시대 수백 개에 이르는 작은 나라들이 그 근거지가 됐는데, 사상가들은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의 생각과 논리를 주고받고, 가다듬을 수 있었다. 이 시기 사상만이 아니라 거의 전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은 이후 중국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이후 여러 개의 작

공정한 경쟁

1960년대부터 60여 년 간 일제강점기의 시스템 위에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투자’ ‘신속한 성장’이라는 기조가 더해졌다. 이는 인구·자본의 수도권 집중과 국가 기반시설의 편중 설치, 지역 간 불균형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다. 춘추시대 수백 개에 이르는 작은 나라들이 그 근거지가 됐는데, 사상가들은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의 생각과 논리를 주고받고, 가다듬을 수 있었다. 이 시기 사상만이 아니라 거의 전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은 이후 중국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이후 여러 개의 작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직권)(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